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4 in E♭ major, WAB 104 "Romantic"
작곡가: Anton Bruckner (1824–1896)
작곡 ·개정: 1874년 제 1판 완성, 1875–1876년 수정, 1878–1880년 제 2판 완성, 1888년 제 3판 완성 제 2판 세계 초연: 1881년 2월 20일, Vienna; Hans Richter 지휘,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 장르 ·구성: 관현악을 위한 4악장 교향곡. 세 개의 주요 전곡 판본과 1878년 Volksfest 피날레가 존재 조성: E♭ major
초판: 1889년, Albert J. Gutmann, Vienna. 1888년 제 3판 계열
악곡 소요 시간: 판본과 해석에 따라 약 60–70분

IMSLP: Symphony No.4 in E-flat major, WAB 104 (Bruckner, Anton)

Wikipedia: Symphony No. 4 (Bruckner)

Anton Bruckner의 *Symphony No. 4 in E♭ major, WAB 104 "Romantic"*은 관현악을 위한 네 악장 교향곡이다 . Bruckner가 직접 붙인 "Romantic"이라는 이름은 모든 판본에 공통으로 통용되지만 , 실제 악보는 1874년 제 1판, 1878년부터 1880년까지 만든 제 2판, 1888년 제 3판으로 나뉜다. 이 글은 세 전곡 판본과 1878년 Volksfest 피날레를 함께 다루며, 악장별 설명은 1881년 세계 초연에 쓰인 제 2판 계열을 기준으로 삼는다.

제 2판의 순서는 Bewegt, nicht zu schnell, Andante quasi Allegretto, 사냥 Scherzo와 Trio, Finale. Bewegt, doch nicht zu schnell이다. 오늘날 익숙한 사냥 Scherzo와 1880년 피날레는 1874년 악보에 없었다. 제 1판에는 전혀 다른 Scherzo와 피날레가 있으며 튜바도 사용하지 않는다. 1888년판은 제 2판의 악장 배열과 주요 재료를 유지하면서 Scherzo와 피날레를 줄이고, 템포와 관현악법을 다시 다듬으며 플루트 주자를 세 명으로 늘린다. 세 플루트 주자 가운데 한 명이 피콜로를 겸하고 피날레에는 심벌즈가 추가된다.

판본 표기는 공연 준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 1874/76, 1878/80, 1888 은 서로 다른 작곡 단계이고, Haas, Nowak, Korstvedt, Cohrs는 그 자료를 편집한 사람이다. 같은 번호와 별칭을 달고 있어도 Scherzo의 음악, 피날레의 형식, 편성과 빠르기 지시가 바뀐다. 연주 시간도 약 60분부터 70분 이상까지 벌어지므로 , 음반이나 공연의 판본을 확인해야 악장 설명과 실제 소리가 맞는다.

한 작품에 겹친 세 완결판
Bruckner는 1874년 1월 2일 제 1판을 시작하여 11월 22일에 전곡을 마쳤다. 1876년에는 예정된 공연을
위해 박자와 구문을 일부 손질했지만 공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제 1판은 작곡가 생전에 전곡으로 연주되지

않았고, Leopold Nowak가 편집한 총보가 나온 1975년에야 Linz에서 Kurt Wöss가 지휘한 Munich Philharmonic의 연주로 처음 공개되었다 .

1878년 1월 Bruckner는 자신이 ‘철저한 개작 ’이라고 부른 작업에 착수했다. 제 1악장과 제 2악장을 압축하고 다시 구성했으며 , 1874년 Scherzo를 버리고 사냥 신호가 중심인 새 Scherzo를 썼다. 처음 마련한 새 피날레에는 Volksfest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이 악장도 초연 전에 철회했고, 1879년부터 1880년에 걸쳐 더 어둡고 규모가 큰 피날레를 새로 작곡했다. 이로써 1878년에 고친 앞 세 악장과 1880년 피날레가 결합한 제 2판이 만들어졌다 .

세계 초연은 1881년 2월 20일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의 연주회에서 Hans Richter의 지휘로 열렸다. 리허설 과정에서 일부 악구가 고쳐졌고 Bruckner는 1886년에도 관현악과 세부 표기를 보완했다. 현대 판본이 1878/80, 1880/81, 1886 처럼 조금 다른 연도를 내세우는 까닭은 이 연속적인 수정을 어느 시점에서 묶느냐에 있다. 곡 전체를 새로 쓴 별도의 네 번째 판본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초연은 청중의 호응을 얻었고, Bruckner가 교향곡 작곡가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성공이 되었다. 그러나 출판은 제 2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887년과 1888년에 Bruckner는 Ferdinand Löwe, Franz와 Joseph Schalk의 도움을 받아 다시 악보를 고쳤다. 제 3판은 1888년 1월 22일 Hans Richter와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가 처음 연주했으며 , 공연 뒤의 수정까지 거쳐 다음 해 Gutmann 초판의 바탕이 되었다.

출판 정보와 자료

Albert J. Gutmann은 1889년 9월 Vienna에서 1888년 제 3판 계열의 총보를 출판했고, 작곡가의 요청에
따른 교정쇄가 1890년에 나왔다. 두 인쇄를 묶어 1889/90 으로 기록하는 서지도 있다. Gutmann 판은 1936 년 Robert Haas가 제 2판을 편집하여 내놓을 때까지 연주자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인쇄 총보였다.

Haas는 1878년에 고친 앞 세 악장과 1880년 피날레를 결합한 판을 1936년에 출판했다. 이 판이 널리
퍼지면서 1888년판은 Löwe와 Schalk가 작곡가의 뜻을 훼손한 악보라는 평가를 받았고 연주장에서 거의 사라졌다. Leopold Nowak는 1953년에 같은 제 2판 계열을 새로 편집했으며 , 1975년에는 1874년 제 1판, 1981년에는 Volksfest 피날레를 출판했다.

Benjamin M. Korstvedt의 연구는 1888년판의 지위를 바꾸었다. Löwe와 Schalk가 작업에 참여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 Bruckner도 개정과 공연, 출판 준비에 면밀하게 관여하고 결과를 승인했다. Musikwissenschaftlicher Verlag는 Korstvedt가 편집한 1888년판을 2004년 비평 전집에 받아들였다 . 따라서 이 판은 제 2판보다 열등한 타인의 편곡이 아니라, 작곡가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후기 연주 텍스트로 다루어야 한다.

Korstvedt가 편집한 신전집의 제 2판은 Austrian National Library의 자필 총보 Mus.Hs.19476뿐 아니라 1881년 초연 총보와 관현악 파트까지 대조했다. 이 판은 초연 리허설에서 Bruckner가 개선으로 받아들인
수정을 주본문에 넣고, 1886년 보완은 부록으로 구분한다. 특히 피날레의 박자 변화와 서로 연관된 템포 체계를 Haas와 Nowak 판보다 분명하게 제시한다. Benjamin-Gunnar Cohrs의 2021년판은 1878–1881년 자료와 폐기된 악장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정리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는 작곡 연도만 쓰기보다 편집자와 판본까지 함께 밝히는 편이 정확하다.

소요 시간

Musikwissenschaftlicher Verlag는 1874년 제 1판과 1888년 제 3판을 각각 약 60분, 1878/80 제 2판을 약 67분으로 안내한다. *Volksfest* 피날레만 연주하면 약 16분이다. 실제 제 2판 연주는 대체로 65–70분에 놓이지만, 템포 관계와 악장 안의 유연성을 다르게 잡으면 60분 안팎이나 70분을 넘는 경우도 있다.

Korstvedt 판을 사용한 Markus Poschner의 녹음은 판본별 비율을 비교할 구체적인 표본을 제공한다. 1874/76판은 약 66분, 1878/80판은 약 68분, 1888년판은 약 62분이다. 제 2판에서는 제 1악장 약 20분, 제 2악장 약 15분, Scherzo와 Trio 약 11분, 피날레 약 22분이 걸렸다. 이 수치는 고정된 표준 속도가 아니라, 판본 자체의 길이와 한 지휘자의 템포가 함께 만든 결과다.

편성

악기군	1874/76 제 1판	1878/80 제 2판	1888 제 3판
목관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제 1판과 같음	플루트 3(한 명은 피콜로 겸함),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1	제 2판과 같음
타악기	팀파니	팀파니	팀파니, 심벌즈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제 1판과 같음	제 1판과 같음

튜바는 제 2판에서 추가되며 1874/76 제 1판에는 없다. 1888년판은 플루트 주자를 세 명으로 늘리고 그 가운데 한 명에게 피콜로를 맡기며, 피날레에 심벌즈를 사용한다. 이 편성표의 피콜로 겸함 은 네 번째 목관 주자가 별도로 추가된다는 뜻이 아니다. Bruckner의 다른 교향곡에서 중요한 Wagner tuba는 제 4번의 어느 판본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편성 차이는 악기 수와 함께 실제 성부 배치에도 나타난다. 1888년판은 목관과 금관을 현악과 중복하는 대목, 팀파니의 사용, 셈여림과 프레이징을 넓게 손질했다. 피날레의 심벌즈는 강한 한 차례의 타격과 여린 두 차례의 타격처럼 극히 제한적으로 쓰인다. 제 2판의 악기 목록으로 연주하면서 1888년판의 심벌즈만 임의로 더하는 방식은 독립 판본의 구분을 흐린다.

판본을 가르는 실제 음악

구분	네 악장의 조합	두드러진 차이
1874/76 제 1판	원래 제 1·제 2악장, 3/4박자의 원래 Scherzo, 원래 피날레	대위적인 전개와 까다로운 음형이 많고 튜바가 없음

구분	네 악장의 조합	두드러진 차이
1878 중간형	개작한 제 1·제 2악장, 새 사냥 Scherzo, *Volksfest* 피날레	익숙한 Scherzo가 처음 등장하고 피날레는 약 16분의 축제적 성격을 띰
1878/80 제 2판	1878년 앞 세 악장, 1880년 새 피날레	1881년 초연의 바탕이며 현대 공연의 중심
1888 제 3판	제 2판의 네 악장을 다시 수정	Scherzo 회귀와 피날레를 줄이고, 템포·관현악·전환을 재설계

1874/76 제 1판

제 1판은 제 2판의 거친 초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한 전곡이다. 첫 악장의 처음 열여덟 마디와 호른 호출 같은 핵심은 후대 판본으로 이어지지만, 전개부에는 더 긴 대위법과 복잡한 음형이 놓인다. 제 2악장도 C minor의 걷는 선율과 비올라의 노래를 공유하면서, 더 촘촘한 성부 결합과 연주하기 까다로운 현악 음형을 사용한다.

가장 즉시 들리는 차이는 Scherzo다. 1874년 악장은 E♭ major의 3/4박자로 쓰였고 독주 호른이 중심에 놓인다. 1878년에 새로 만든 B♭ major 2/4박자의 사냥 Scherzo와는 주제와 박자, Trio의 조성이 모두 다르다. 원래 피날레도 훨씬 긴 대위적 전개를 거친다. Bruckner는 1876년에 일부 박자와 구문을 손질했으므로, Korstvedt의 신판은 최종 수정 상태를 1876판으로 부른다. Nowak의 1874판과 같은 제 1판 계열이지만 악장 머리의 빠르기 표기까지 완전히 같지는 않다.

1878년 *Volksfest*와 1880년 피날레

Bruckner는 1878년 개작에서 제 1·제 2악장을 줄이고 구문을 더 규칙적으로 만들었다. 같은 해 새 사냥 Scherzo를 썼고, 피날레에는 *Volksfest*, 곧 민중 축제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피날레는 제 1판 재료를 활용하면서 133마디를 줄이고 동기 전개를 단순하게 정리했다. 현재의 신전집에서는 *Allegro moderato*라는 빠르기를 지닌 독립 악장으로 연주할 수 있다.

1880년 피날레는 *Volksfest*를 대체한 새 악장이다. Bruckner는 중간형 피날레를 철회하고 새 악장을 썼다. 어두운 도입, 하행 동기, 거친 첫 주제, 긴 중단과 재출발, 전곡의 첫 호른 호출이 돌아오는 coda가 이때 마련되었다. 1881년 초연은 이 새 피날레를 사용했다. *Volksfest*라는 이름과 축제 이미지를 1880년 피날레의 표제로 옮기면 서로 다른 두 악장을 혼동하게 된다.

1888년 제 3판

제 3판은 제 2판의 큰 악장 배열을 보존하면서도 공연에서 즉시 들리는 변화를 만든다. 첫 두 악장은 큰 형식을 유지한 채 관현악, 셈여림, 프레이징과 국부적인 빠르기를 손질한다. 사냥 Scherzo의 첫 부분 끝에는 Trio로 조용히 넘어가는 이행구가 생기며, Trio 뒤의 Scherzo 회귀는 65마디가 줄어든다. 제 2판의 두 차례 큰 종결 가운데 첫 번째를 약화하여 마지막 종지의 비중을 키운 셈이다.

피날레에서는 전개부에서 재현부로 가는 연결을 바꾸고 재현부의 첫 주제군을 생략한다. 두 번째 주제군도
줄이고 조성을 바꾸어 E♭ major의 완전한 귀환을 coda까지 늦춘다. 피콜로와 심벌즈, 확대된 팀파니는 음향의 경계를 더 뚜렷하게 하며, Mäßig bewegt를 비롯한 빠르기 지시는 제 2판보다 세분된다. 전체 길이를 줄이는 동시에 귀환의 시점과 마지막 절정의 역할을 다시 설계한 후기 판본이다.

"Romantic"이라는 이름의 범위
Bruckner는 이 교향곡에 "Romantic"이라는 이름을 직접 붙였다. 다만 명명 시점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고, 네 악장을 잇는 상세한 서사도 악보에 고정하지 않았다. 작곡가가 편지와 자필에 남긴 짧은 장면들은 음악의 출발 이미지를 알려 주지만, 모든 주제와 조성을 특정 사건에 대응시키는 줄거리는 아니다.

1884년 Hermann Levi에게 보낸 편지에서 Bruckner는 제 1악장의 첫 호른이 잠을 잔 뒤 아침을 알리고, 이어 삶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편지는 제 2악장을 노래, 기도, 세레나데라고 적고, 제 3악장에는
사냥과 숲속 식사 때의 음악이라는 말을 붙인다. 1878년 Wilhelm Tappert에게 보낸 편지와 자필 제목은 Scherzo를 사냥, Trio를 사냥꾼들이 식사하며 듣는 춤으로 더 분명히 규정한다.

중세 도시의 새벽, 성문이 열리고 기사들이 숲으로 나간다는 더 긴 이야기도 Bruckner의 설명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악보에 인쇄된 프로그램보다 후대 회고와 전언을 거쳐 알려진 스케치에 가깝다. 피날레에는
작곡가가 끝까지 유지한 장면 제목이 없다. 따라서 "Romantic"은 자연과 사냥, 노래와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지만 네 악장을 문학적 사건 순서로 묶는 확정 대본은 아니다.

제 2판의 네 악장

I. Bewegt, nicht zu schnell
E♭ major의 현악 트레몰로가 아주 여리게 이어지는 가운데 제 1호른이 완전 5도를 중심으로 한 호출을 낸다. 이 신호는 첫 주제군의 출발점이 되고, 전 합주가 2박과 3박을 결합한 이른바 Bruckner 리듬으로 확대한다. 작곡가의 편지를 따르면 이 호른은 아침을 알리는 소리다. 표제와 무관하게도 첫 호출은 악장 마지막 coda와 전곡의 마지막에 돌아오는 순환 재료다.

악장은 세 주제군을 지닌 소나타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주제군의 호른과 힘찬 합주 뒤에는 D♭ major 쪽으로 이동하는 제 2주제군이 나온다. 바이올린의 짧은 음형과 비올라의 대선율이 함께 움직이며, Bruckner 는 이 구간의 새소리를 박새와 연결했다. B♭ major의 제 3주제군에서는 금관과 2+3 리듬이 다시 전면에 나온다.

전개부는 호른 호출과 승마를 떠올리게 하는 리듬을 전위하고 겹치며, 금관 코랄을 큰 도착점으로 삼는다. 재현부에서는 같은 세 주제군이 기계적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첫 호른과 플루트의 움직임이 포개지고, 앞에서 끊겼던 음형들이 다른 음역과 편성으로 돌아온다. coda는 현악 트레몰로 위의 먼 호출을 전 합주의 E♭ major 로 바꾸면서, 첫 마디의 공간을 악장 전체 크기로 넓힌다.

II. Andante quasi Allegretto

제 2악장은 C minor에서 첼로의 긴 선율과 걷는 저음으로 시작한다. Bruckner가 남긴 '노래, 기도, 세레나데'라는 세 단어는 이 악장의 서로 다른 표정을 압축한다. 첼로의 첫 노래가 행진하는 걸음을 만들고, 피치카토 위에 놓인 비올라 선율은 더 사적인 세레나데의 성격을 보인다. 현악 코랄과 목관의 응답은 이 두 재료 사이를 잇는다.

형식은 소나타적 전개를 품은 다섯 부분의 론도, 곧 A–B–A′–B′–A″와 coda로 설명된다. 두 주요 재료가 돌아올 때마다 음역과 관현악이 커지고, 긴 고조는 C major의 큰 절정에 닿는다. 악장은 그 밝은 화음을 결말로 삼지 않고 다시 C minor의 어두운 걸음으로 돌아가 짧게 닫힌다. 첫 악장의 넓은 호출과 달리 일정한 보행 리듬이 긴 시간을 조직한다.

III. Scherzo. Bewegt; Trio. Nicht zu schnell. Keinesfalls schleppend

네 대의 호른이 사냥 신호를 시작하고 트럼펫과 현악이 합류한다. 2/4박자 안에서 두 박과 세 박의 묶음이 맞부딪치며, 짧은 신호가 여러 차례 돌아와 Scherzo의 큰 구획을 나눈다. 이 악장은 1878년에 새로 쓴 것으로, 1874년 제 1판의 3/4박자 Scherzo와 음악을 공유하지 않는다.

G♭ major의 Trio는 3/4박자로 바뀌고 저현의 드론 위에서 목관이 완만한 춤을 연주한다. 작곡가가 자필에 붙인 말은 '사냥 중 식사 때의 춤'이다. 빠르기 표기 *Nicht zu schnell. Keinesfalls schleppend*는 Scherzo와 대비되는 여유를 요구하면서도 음악이 늘어지지 않게 한다. Trio 뒤에는 Scherzo가 돌아온다. 1888년판은 첫 Scherzo에서 Trio로 이어지는 연결을 새로 만들고, 되돌아온 Scherzo를 줄여 마지막 종지에 힘을 모은다.

IV. Finale. Bewegt, doch nicht zu schnell

제 2판의 피날레는 E♭ major를 조성의 중심으로 삼지만, 약 42마디의 도입은 어두운 하행 동기와 낮은 현악의 반복으로 불확실한 출발을 만든다. 압력이 충분히 쌓인 뒤 관현악이 같은 동기를 거친 유니즌으로 내놓는다. 첫 악장의 밝은 호른 호출을 바로 회복하지 않고, C minor의 제 2악장을 떠올리게 하는 영역을 오래 통과한다.

이 악장도 세 주제군을 지닌 소나타적 설계를 사용한다. 첫 주제의 무거운 유니즌, 더 유연하게 노래하는 두 번째 주제군, 리듬이 거칠게 폭발하는 세 번째 주제군이 나온다. 전개부에서는 하행 동기를 위로 뒤집고 각 주제의 파편을 쌓는다. 재현과 coda 사이에는 큰 휴지와 낮은 음량의 재출발이 반복되므로, 한 번의 계속된 crescendo보다 여러 번 방향을 다시 세우는 형식으로 들린다.

마지막 coda에서는 하행형과 상행형이 결합하고, 제 1악장을 열었던 호른 호출이 E♭ major로 돌아와 전곡의 도착점이 된다. 제 3판은 재현부를 줄여 E♭ major의 완전한 귀환을 더 늦추지만, 두 판 모두 첫 악장의 호른을 마지막에 확대하여 네 악장을 묶는다.

연주와 해석의 쟁점

첫 호른의 시간

첫 호른은 트레몰로가 시작된 뒤 홀로 들어오므로 , 음정과 발음뿐 아니라 언제 숨을 내놓을지가 음악의 공간을 결정한다. 오랫동안 Vienna Philharmonic에서 수석 호른을 맡은 Roland Berger는 International Horn Society 인터뷰에서 이 독주가 어떤 지휘자와 연주해도 어렵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많은 음을 연주하는
대목보다 두 마디를 기다린 뒤 시작하는 순간의 긴장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Berger는 Rafael Kubelík과 연주했을 때의 협업도 회고했다. Kubelík은 현악의 시작만 지시한 다음 Berger가 원하는 순간에 첫 음을 내게 했다. 박을 포기한 사례가 아니라, 현악 트레몰로와 호른 호출 사이의 거리를
독주자의 호흡으로 정한 선택이다. Berger가 반복 공연을 거치며 긴장이 줄었다고 한 말은, 리허설에서 첫 진입만 떼어 맞추는 것과 실제 공연의 긴 침묵 뒤에 소리를 내는 경험이 다르다는 점도 보여 준다.

하나의 맥박과 여러 빠르기

Simon Rattle은 2006년 Berlin Philharmonic과 녹음할 때 피날레를 관통할 하나의 기본 맥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이 악장에서 많은 국부적 템포 변화가 사용되었지만 , 그는 서로 다른 구간을 같은 걸음 안에 넣었다. 아주 긴 프레이즈가 끝난 뒤 멈추고 숨 쉬는 Bruckner의 구문을 살리려면, 움직이는 동안의 리듬 격자는 오히려 단단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Korstvedt의 신비평판은 Rattle의 선택과는 다른 자료적 출발점에서 같은 문제를 선명하게 만든다. 초연 자료에 남은 박자 변화와 Bruckner가 의도한 템포 관계를 복원하여, 지휘자가 각 구간을 독립적인 빠르기로 감각적으로 잇는 대신 공통 분할을 계산할 수 있게 한다. 하나의 숫자로 전곡을 고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본 박의 관계를 유지한 채 큰 프레이즈 끝의 호흡과 새 단락의 성격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금관의 강도와 긴 crescendo
Nathalie Stutzmann은 2024년 Atlanta Symphony Orchestra와 제 4번을 공연하고 녹음하면서 금관 파트를 따로 리허설했다 . 2026년 Classica 인터뷰에서 그는 악보의 forte, fortissimo를 데시벨의 계속된 증가로 처리하면 자신이 원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관이 더 둥글게 노래하면서 음량 대신 강도를 높이도록 각 프레이즈를 직접 불러 주었다.

현대 금관은 Bruckner 시대의 악기보다 큰 소리를 쉽게 낸다. 제 2악장 C major 절정이나 피날레의 앞쪽 고조에서 최대 음량을 사용하면 현악의 내부 리듬이 가려지고 마지막 coda에 더할 여지가 사라진다. Stutzmann은 긴 crescendo의 중간에서 모든 힘을 풀지 않고 절정까지 비축하는 일을 강조한다. 금관을 약하게 만드는 접근이 아니라, 소리의 둥근 발음과 화성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최종 도착점의 크기를 남기는 접근이다.

Jakub Hrůša는 Bamberg Symphony 인터뷰에서 피날레 coda 약 세 분을 같은 문제의 가장 어려운 대목으로 꼽았다. 한 시간 가까운 연주가 지난 뒤 다시 침착한 출발점을 만들고, ostinato가 이어지는 동안 광채와 부드러움, 큰 음량과 내적인 집중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coda의 첫 단계부터 종결의 소리를 내기보다, 반복되는 저음과 화성 변화를 따라 상승의 단계를 분명히 나누는 선택이다.

판본을 리허설 계획에 반영하기

제 2판과 제 3판은 악보의 길이만 다른 것이 아니다. 1888년판 Scherzo는 Trio로 가는 연결과 축약된 회귀를 사용하므로 , 제 2판처럼 첫 종지를 크게 닫았다가 새로 시작하면 악장 설계가 맞지 않는다. 피날레도 재현부의 첫 주제군이 생략되어 E♭ major의 귀환을 coda까지 미루므로, 전개와 재현의 경계를 잡는 지휘자의 계획이 달라진다.

연주 파트가 총보와 같은 판인지 확인하는 일도 필요하다. 1881년 초연 파트에는 리허설 수정이 남아 있고, 초기 인쇄 파트와 Haas·Nowak·Korstvedt 판은 박자와 셈여림의 세부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있다.
프로그램에 1878/80 만 적고 서로 다른 편집판의 총보와 파트를 섞으면, 피날레의 템포 관계와 프레이징
지시에서 실제 합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요 녹음

Karl Böhm · Staatskapelle Dresden, 1936
1936년 HMV에서 제작한 이 녹음은 일반적으로 교향곡 전곡의 첫 상업 녹음으로 인정된다. 같은 해 출판된 Haas의 제 2판 계열을 사용했으며 , 뒤에 정착한 느리고 장중한 Bruckner상보다 빠르고 압축된 진행을 들려준다. 초판 Gutmann 판만 유통되던 시대가 끝나고 제 2판이 새로운 표준으로 등장한 바로 그 시기의 연주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Eliahu Inbal · Frankfurt Radio Symphony Orchestra, 1982

Teldec이 제작한 이 음반은 1874년 제 1판을 국제 음반 시장에 본격적으로 알린 초기 디지털 녹음이다. 전곡은 약 68분이며, 전혀 다른 Scherzo와 긴 대위적 피날레, 튜바가 없는 금관을 완전한 교향곡의 일부로
들려주었다 . 1975년 Kurt Wöss의 초연 실황이 앞서 존재하므로 최초 녹음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 음반은 제 1판을 제 2판의 미완성 초고가 아니라 독립된 연주 텍스트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Günter Wand · Berliner Philharmoniker,

1998

RCA Berlin 2 69 1 Scherzo 1999 *Gramophone* , 2012 BBC *Building a Library* Haas·Nowak Haas Nowak 2

Jakub Hrůša · Bamberger Symphoniker, 2020–2021

Accentus Music 4CD *Bruckner 4: The 3 Versions* 1874/76, 1878/80, 1888 *Volksfest* · . Korstvedt . Bruckner Society of America 2022 ‘Recording of the Year’ .

Simon Rattle · London Symphony Orchestra, 2022

LSO Live 2CD Cohrs 2021 . 1878–1881 2 , 1874/76 Scherzo, 1878 *Volksfest* , *Andante* 1881 . , Rattle .

Nathalie Stutzmann · Atlanta Symphony Orchestra, 2024

2024 Warner Classics 2026 . Stutzmann Cohrs 1878–1881 , 72 . crescendo . Vienna Berlin Bruckner , .

- Musikwissenschaftlicher Verlag, Bruckner Complete Edition□ □ 4□ □□ □□
- Musikwissenschaftlicher Verlag, New Anton Bruckner Complete Edition□ □ 2□□ Volksfest □□□
- Anton Bruckner Werkverzeichnis, WAB 104 □□ □□□ □□□ □□
- Benjamin M. Korstvedt, □□□□ □ 2□ □□
- Benjamin M. Korstvedt, □ The First Published Edition of Anton Bruckner’s Fourth Symphony□
- Austrian National Library, Bruckner Digital
- Boston Symphony Orchestra □□ □□
- Brucknerhaus Linz, □ □□ □□□ Volksfest □□□ □□
- Simon Rattle □□□ , The Bruckner Journal Vol. 11 No. 2
- Roland Berger□ Dale Clevenger□ □□ □□□ , International Horn Society
- Nathalie Stutzmann□ □ 4□ □□ □□□ , Classica
- Jakub Hrůša□ □□□ coda □□ , Bamberger Symphoniker
- Bamberger Symphoniker, Hrůša□ Bruckner 4 □□ □□ □□
- Bruckner Society of America, Recording of the Year □□
- London Symphony Orchestra, Rattle□ Cohrs □ □□ □□
- Warner Classics, Stutzmann□ Atlanta Symphony Orchestra □□ □□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5:17 UTC by □□□
Updated 2026-10-04 10:05:17 UTC by □□□